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소비자 신뢰지수 2022년 7월 이래 가장 낮아
- CNBC: 모기지 상승에도 2월 주택 가격 더 상승... Shiller 지수
- WSJ: 연준, 지속적인 고금리 시사
- Bloomberg: 미 노동 비용 1년새 가장 크게 상승... 임금 상승 압력

[금융]

- CNBC: IMF, “미국의 고금리는 이머징 마켓에 리스크”

[미국 생활]

- CNBC: 젊은 미국인, 지난 4년간 거의 절반 가량 부 상승

[에너지]

- CNN Business: 미국의 휘발유 가격 4불까지 가지 않는다
- CNBC: 오일 가격 상승...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강경 발언에
- WSJ: 재생 에너지로는 전 세계 전력 수요 대응 못 한다

[인공지능]

- Bloomberg: ‘AI, 텍사스 기업 4곳 중 1곳 인력 줄인다’

[교통]

- Bloomberg: 연방정부, 자동차에 긴급 제동 시스템 설치 의무화... 충돌 예방

[중국 경제]

- WSJ: 중국의 ‘금리 인하 및 부동산 시장 지원 약속’이 커지는 경제 불확실성 암시한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Walmart, 신규 프리미엄 브랜드 통해 건강 식품 업체들과 경쟁
- Bloomberg: 버거킹, 미국 매출 상회 ... 매장 개혁의 성과 덕분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nsumer Confidence Slumps to Lowest Level Since July 2022

미 소비자 신뢰지수 2022년 7월 이래 가장 낮아

- 4월 미 소비자 신뢰지수가 2022년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노동 시장과 미국 경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입장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 컨퍼런스 보드의 신뢰지수는 3월에 하향 조정된 103.1에서 4월에는 97로 떨어졌는데 3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향후 6개월에 대한 기대 심리는 66.4로 지난 2022년 7월 이래 가장 낮았다. 현재 여건 지수는 142.9로 감소했다.
- 소비자들은 강한 인플레이, 높은 차용 비용, 점차 둔화되고 있는 고용 시장, 그리고 11월 선거의 경제 대한 여파에 신경을 쓰고 있다.

Bloomberg 기사

CNBC: Home prices soar even higher in February, despite higher mortgage rates, says S&P Case-Shiller

모기지 상승에도 2월 주택 가격 더 상승... Shiller 지수

- 화요일 S&P CoreLogic Case-Shiller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2월 주택 가격이 작년 동월에 비해 6.4% 상승했다. 2월에도 연율로 6% 상승해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이래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다.
- 특히 샌디에고의 경우 20개 대도시 지수 중에 11.4%로 작년 2월 이래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시카고와 디트로이트는 연율로 8.9% 올랐다.
- 모기지 상승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한 주택 수요와 타이트한 공급 때문이다.

CNBC 기사

WSJ: Fed to Signal It Has Stomach to Keep Rates High for Longer

연준, 지속적인 고금리 시사

- 오늘 화요일부터 연준은 이틀간의 회의를 진행하는데 기준 금리는 여전히 5.3%쯤으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개월간의 강한 금리와 오늘 화요일 발표된 강한 임금 압력으로 고금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연준 관리들도 자신들이 당초 예상한 기대와는 달리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디고 금리 인하 속도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Bloomberg: US Labor Costs Rise by Most in Year in Sign of Wage Pressures

미 노동 비용 1년 새 가장 크게 상승... 임금 상승 압력

- 오늘 화요일 연방 노동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임금과 수당을 가늠하는 고용 비용 지수가 1년 새 가장 빠른 1.2% 상승했다.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작년 말 0.9% 상승보다 빠른 수치.

-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노력을 가로막는 상황인데 예상대로 주식은 하락했고,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금융]

CNBC: IMF chief warns of emerging market risk with high U.S. interest rates

IMF, “미국의 고금리는 이머징 마켓에 리스크”

- IMF 총재인 Kristalina Georgieva는 경고했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이머징 마켓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달러로 표시되는 이머징 마켓의 부채를 더 비싸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
- 그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 정책 차이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에 대한 전망을 낮추었지만 이처럼 이머징 마켓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투자자들이 미국에 더 투자하기 때문에 이들 이머징 마켓에서부터 자본이 유출되면서 타이트한 금융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CNBC 기사

[미국 생활]

CNBC: Young Americans' wealth grew by nearly 50% over the last 4 years —it's not just from buying homes

젊은 미국인, 지난 4년간 거의 절반 가량 부 상승

- 미국인 28세부터 43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밀레니엄 세대인 젊은 미국인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9%의 부를 늘렸다고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nalysis는 밝혔다.
- 2019년 말 현재 40대 이하 미국인들은 인플레이 조정치로 자산이 17만4천불이었다는 것. 이것이 2023년 말에 8만5천불 늘어서 25만9천불 상승했다.
- 이들의 주택 가격 상승이 부의 증가에 도움이 되었지만 같은 기간 4년 동안 이들의 주택 소유율도 1.5% 상승한 것으로 센서스국은 밝혔다.

CNBC 기사

[에너지]

CNN Business: Good news: The worst could be over for gas prices this spring

미국의 휘발유 가격 4불까지 가지 않는다

- 어제 월요일 현재 미 전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66센트로 지난주 3달러 68센트보다 내렸다고 AAA는 밝혔다.
- 휘발유값이 올봄이나 아니면 금년에 최고치 또는 최고치에 근접한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지정학적으로 더 큰 위험 요소가 없는 한 휘발유값은 향후 수 주 동안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CNN Business 기사

CNBC: Oil prices edge higher as Netanyahu says Israel will attack Rafah with or without hostage deal

오일 가격 상승...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강경 발언에

- 최근 미국은 가자 남부지역의 Rafah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해 '가자 휴전 협정'을 시도하고 있다.
- 미 행정부 고위 관리와 아랍 외교관들도 언론사에 이스라엘이 6주 이상 지속되고 있는 휴전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수상은 Rafah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웨스트 중질유 선물은 0.33% 오른 82불 90센트, 브렌트유 선물은 0.09% 상승한 88불 48센트를 기록했다.

CNBC 기사

WSJ: Air Conditioning and AI Are Demanding More of the World's Power —Renewables Can't Keep Up

재생 에너지로는 전 세계 전력 수요 대응 못 한다

- 재생 가능한 전기(Renewable electricity)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문제는 더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
- '에너지 소비가 지나치게 높은' 인공지능은 미국 내 급격한 전력 수요 상승의 주된 원인이다. 또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전기 자동차, 열 펌프 등의 장치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이미 미국 내 전력 수요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 더욱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산업화와 조명,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전력 수요를 높였다. 이는 석탄을 포함한 화석 연료의 사용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 인도의 재생 에너지 기업 ReNew의 CEO Sumant Sinha는 “끊임없이 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인공지능]**Bloomberg: AI to Reduce, Alter Staffing at 1 of 4 Texas Firms, Survey Shows****‘AI, 텍사스 기업 4곳 중 1곳 인력 줄인다’**

- 텍사스 기업 4곳 중 한 곳은 AI로 인해 필요 인력이 줄어들거나 인력 구조가 바뀔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 약 11%가 비즈니스 모델에 AI를 사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로 인한 인력 감축이 이미 시작됐다고 대답한 것.
- 또 다른 13.5%는 AI로 인해 필요한 근로자의 유형이 변화할 것이라 답변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다른 직무를 위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AI 산업 자체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비즈니스 리더들은 생산성 측면에서 기업 내 AI 활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교통]**Bloomberg: Fatal Car Crashes Prompt New US Rule on High-Speed Braking****연방정부, 자동차에 긴급 제동 시스템 설치 의무화... 충돌 예방**

- 최근 몇 년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 당국은 2029년부터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규 자동차에 ‘긴급 제동 시스템 (automatic emergency braking systems)’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 월요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성명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승용차 및 경트럭이 시속 62마일(100킬로미터) 속도로 운행될 경우에 긴급 제동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23년에 4만9백90명이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1년에 16년 만의 최고치인 4만2천9백15명이 사망한 데 뒤이은 수치이다.
- 미국 교통부 장관 Pete Buttigieg는 “자동 제동 의무화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중국 경제]

WSJ: China Hints at Rate Cuts, Property-Market Support as It Warns of Rising Uncertainties**중국의 '금리 인하 및 부동산 시장 지원 약속'이 커지는 경제 불확실성 암시한다**

- 중국이 부진한 경제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미래 전망에 대한 중국 정부 최고위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 화요일 회의를 통해 중국공산당 정치국은 차입 비용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동시에 오랫동안 연기된 정책 회의를 소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일정이 관례보다 늦어지면서 중국 경제 관리들이 경제 침체 해법에 고민이 깊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무역, 외국인 투자, 고령화 및 노동력 감소 등의 문제가 중국 경제의 장기적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작년의 여러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경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Walmart Takes On Trader Joe's and Whole Foods With New Premium Brand**Walmart, 신규 프리미엄 브랜드 통해 건강 식품 업체들과 경쟁**

- 월마트가 식품 분야의 확장을 시도한다. 글루텐 프리 머핀 믹스 및 귀리 우유 아이스크림이 핵심 제품군이다.
- 미국 내 최대 식료품 업체인 월마트는 고소득층 신규 고객을 더 유치하고 기존 고객의 지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올해 'Bettergoods'라는 프리미엄 식품 라인을 출시한 바 있다.
- 월마트는 해당 브랜드 개발에만 수년을 소요했으며, 올해 300개 이상의 Bettergoods 품목을 판매 목록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 중 상당수가 5달러 이하로 판매될 예정.
- 이미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Costco Wholesale, Trader Joe's, Amazon.com의 Whole Foods와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월마트의 식품 분야 확장은 베팅에 가깝다. 경쟁 식품 제조업체들을 긴장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

WSJ 기사

Bloomberg: Burger King's US Sales Beat Forecasts as Store Renovations Pay Off**버거킹, 미국 매출 상회 ... 매장 개혁의 성과 덕분**

- 버거킹이 예상보다 높은 1분기 미국 매출을 발표했다. 이는 매장 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매장을 꾸미고 고객을 유치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 2년 동안 매장 리모델링, 광고 활성화, 고객 불만 감소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해당 기업은, 미국과 캐나다의 매장 매출이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 버거킹은 미국 내 매장 개선 및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은 매장 리모델링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Carrols Restaurant Group을 인수했고, 직원 교육을 강화했으며 주문 키오스크를 추가 배치했다.

Bloomberg 기사

'물가 오르고 성장 둔화' 美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고용·소비는 여전히 탄탄...침체 신호 아냐" 반박도

최근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여전한 가운데 성장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후퇴)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다.

미 폭스비즈니스는 29일(현지시간) 미 월가 일각에서 최근의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이러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1~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돈 데 이어, 또 다른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1분기에 3.4% 상승해 작년 1분기(4.2%) 이후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